

지역 **메아리**



김제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6일 김제살내체육관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이·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2017 김제시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김제시 이·통장연합회(회장 오형걸)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관내 이·통장 및 초청인사 등 800여명이 참가해 식전행사, 개회식, 한마음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했다.

송용석 사무국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기념행사는 모범 이통장 표창과 김제시이통장연합회장의 대회사, 김제시장의 격려사, 김제시의회의장, 국회의원, 전라북도이장통장연합회장의 축사, 남·녀 이·통장대표의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명담운동회 후 진행된 장기자랑 시간에는 19개 읍면동에서 각자 숨겨온 귀와 노래실력을 마음껏 뽐내 흥겨움을 더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통장들의 소통과 화합, 시민 역량 결집을 통해 우리시가 글로벌 새민중 중심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이·통장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마음건강 강좌 진행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의로 분과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강좌를 진행했다.

6일 완주군은 지난 달 완주군 이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사랑방일 김재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청해 주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및 우울증 관리'에 대한 마음건강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좌에 이어 보건의로분과 위원들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검사 및 개별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석주 보건의로분과장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로교육을 통해 복지소의계층의 욕구를 해소하겠다"며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 완주군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내년도 60개소 예정... 급식장소 위생·식중독 예방교육 병행

바쁜 농번기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완주군의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6일 완주군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약 60개소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율이 높아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농정심의회를 거쳐 56개소로 늘려 운영했다.

완주군의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철 중식을 해결해 시간을 절약하고, 이웃 간 친목도모와 농사일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농번기 마을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완주군의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 도내 최초로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해마다 사업비를 증액했다.

2015년도에는 상반기 34개소, 하반기 32개소 2016년도 상반기 47개소, 하반기 50개소 등 꾸준히 그 개소를 늘려왔다.

올해는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을당 급식종사원 인건비 및 부식비를 지원했다.

완주군은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달 31일에는 '2017 하반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마을대표자와 급식종사자 80여명이 참여한 설명회를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급식장소 위생 및 식중독 예방교육도 병행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해가 거듭할수록 농번기 공동급식을 통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중국 유학생 대상 관광관련 교육 진행

민간교류대사 역할 기대

완주군이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 교육과정을 개설, 중국에 완주를 알리는 초석을 다진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우석대학교 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관광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 관광교육은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의 운영단체인 (사)마을통과 우석대학교의 협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교육을 이수한 유학생들은 졸업 후 중국 현지에서 현지 여행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향후 농업정책연수, 공적여행 등을 통해 관광객들을 완주군으로 유치하고, 한중교류를 확대시키는 민간교류대사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에 아니라 지속가능한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과 양국의 관계



완주군이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 교육과정을 개설, 중국에 완주를 알리는 초석을 다진다.

를 개척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전북 농업정책과 완주군의 지역형 관광, 6차 산업과 농촌 관광, 완주군 로컬푸드, 공동체 사업과 복지, 일반관광 실무 및 현장실습 등 다양한 지역정책을 비롯해 관광관

련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총괄 진행하는 임채군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장은 "완주군의 우수한 농업농촌정책과 관광환경을 관광 프로그램화해 지속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 3일 김제농협 회의실에서 조합원, 조합원 자녀,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대학생 자녀 38명에게 총 3,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신희동 조합원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기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김제농협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에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농협은 조합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40명에 2천만원으로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571명의 조합원 자녀에게 4억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와 조합원과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농협은 조합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40명에 2천만원으로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571명의 조합원 자녀에게 4억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와 조합원과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농협은 조합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40명에 2천만원으로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571명의 조합원 자녀에게 4억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와 조합원과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 금구면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태세 돌입

김제시 금구면(면장 서원태)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금년 가을철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평년보다 적은 강수예보로 산불위험이 높아 초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구면은 산불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를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를 위해 관리가 잘되는 산정 3개소, 산불취약지 이동감시 8개소에 감시원을 배치 빈틈없는 감시망을 구축하여 산불 감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

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산림인접 마을 2곳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마을 주민들이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산불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철 산행객이 늘면서 화기물 소지 입산을 차단함은 물론 금구명품길 걷기 행사(11.4)때 산불예방 홍보물 배부 및 주말에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서원태 금구면장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예방참여가 중요하다"며 "산림내 취사행위 금지, 등산시 화기물 소지 금지,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 등 적극 동참은 물론 산불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김제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68필지에 대하여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부시장 이후천)' 심의를 완료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고,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김제시청 민원소통과나 읍·면·동사무소, 부동산공사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소통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과세 표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찾아가는 노래교실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11월 30일까지 적극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한울타리 행복의 집(그룹-홀) 26개소를 선정하여 입소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인지훈련 및 우울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노래교실을 실시한다.

이번 찾아가는 노래교실은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노인우울 및 치매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노래 전문 강사(외부강사) 초빙하여 함께 따라 부르기, 이야기 나누기 등,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훈련 및 우울예방 프로그램 이다.

찾아가는 노래교실에서 부르는 노래는 원전종아찌종아, 보약 같은 친구,

물지마세요, 소꿉같은 인생, 안동역에서, 시계바늘, 백세인생 등 순백 치매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도 추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이기는 좋은 시간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치매인지훈련 및 우울예방 노래교실은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인 치매를 조기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치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울타리 행복의집(그룹-홀)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훈련 및 우울예방 프로그램 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택산업과
 063-430-2951